

## ‘팬케이크에 얹는 휘핑크림도 빠졌다’ 노키아, 혀를 내두르는 경비절감대책

세계 최대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가 경기침체에 따라 감원과 생산 감축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마른 수건을 짜내는 듯한’ 경비 절감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어 직원들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

핀란드의 한 일간 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살로시의 노키아 공장 직원 식당에서는 팬케이크와 함께 제공되던 휘핑크림이 지난주부터 메뉴에서 제외됐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청소 용역

서비스를 대폭 줄여 건물 유리창이 예전보다 더러워졌고 회사 주변도 많이 어수선했다. 또 회사 복도의 꽃과 조명 수도 줄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까지 크기가 작은 싼 휴지로 대체됐다.

이런 자잘한 서비스를 없애 줄어드는 경비가 얼마냐는 질문에 회사측은 즉답을 피하면서 “후식이 과일로 대체되기는 하겠지만 직원들이 계속 ‘완벽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 한 명은 누구와 키스했을까?

### 3만9897명 동시키스 기록경신

멕시코시티가 14일 밸런타인 데이를 동시키스 행사(사진)에 대략 4만 명이 참가, 이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

일간 엘 문도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3분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서 인기가수 수산나 사발레타가 ‘베사메 무초’를 부르는 가운데 3만9897명이 일제히 최소 10초 이상 키스를 한 것으로 기네스북 측은 집계했다. 기네스북 측은 그러나 키스 참여자가 흡수인 이유와



구체적인 집계 방식 등은 밝히지 않았다.

종전 최고기록은 지난 2007년 7월 영국 서부 해안도시 웨스턴-슈퍼-마레에서 3만2000여명이 20초간 동시에 키스한 것이다. 연합뉴스

## 한미정상 ‘美서 첫 만남’은 관행?

**워싱턴 리포트**  
박종률 특파원 nowhere@

“오는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를 바란다고 백악관 측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 제 개인 생각으로는 4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인사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미 정상이 상대국이나 제3국에서 모두 49차례만 만남을 가진 사실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동안 부시 대통령을 무려 4차례나 만나는 ‘전례 없는’ 기록을 만들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각 10차례와 8차례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 역대 한미 정상간의 만남을 들여다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특이하게도’ 우리 대통령들이 항상 먼저 미국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거나, 미국의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같은 관례는 마치 ‘불문율’처럼 이어져 내려왔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만도 아니다. 대신 우리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 취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엄청난 관련 기사들을 ‘양산’해내면서 한

국에서만 떠들썩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만 하다.

지난 주 정부 고위당국자로부터 한미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백악관 고위인사의 답변이 우리를 더욱 씩씩하게 만들고 있다. 이 백악관의 고위 인사는 “각국 정상들이 모두 (오바마 대통령을) 따로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원칙을 세워야 하는 데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 당국자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먼저 태평양을 건너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관행’. 이제는 한번쯤 되짚어 봤으면 싶다.

### ‘팔’ 후원단체, 日 작가 하루키에 ‘이스라엘 상’ 거부촉구

팔레스타인 후원단체들이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60)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상’을 거부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이스라엘의 인터넷 매체인

‘와이넷(YNet)’에 따르면 일본 단체인 ‘팔레스타인 포럼’은 최근 공개서신을 통해 ‘예루살렘 상’ 수상자로 선정된 하루키에게 “가자 지구에서 1300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은 이스라엘이 주는 문학상의 수상을 심각하게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개인의 자유 신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한다는 이 상의 취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와 완전히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www.sedaily.com



## 반세기 경제 메신저- 서울경제

**SEN**  
서울경제TV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지나온 길처럼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경제메신저 반세기 서울경제가 함께합니다.

자매지

한국일보 · THE KOREA TIMES · 소년한국일보 · 스포츠한국 · 주간한국 · GOLF · POPULAR SCIENCE · hankook.com · 미주한국일보

구독 : 730-7000  
광고 : 724-2821